

# 자존감 불안정성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의 매개효과<sup>†</sup>

이 다 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졸업

양 재 원<sup>‡</sup>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 불안정성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척도를 이용하여 자존감 불안정성, 상태 자존감, 수치심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후 자아 위협 상황을 실험적으로 조작하였다. 공격 행동은 본 실험 과제에 맞게 수정한 반응속도 경쟁게임을 활용해 측정하였다. 그 결과, 자존감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자아 위협 상황에서 수치심은 증가하였다. 또한, 자존감 불안정성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데 비해, 수치심을 매개로 하는 간접 효과는 유의하여 자존감 불안정성, 수치심, 공격 행동의 완전 매개모형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 결과의 의미와 임상적 적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자존감, 자존감 불안정성, 자아 위협, 수치심, 공격 행동

---

<sup>†</sup> 본 논문의 일부 내용은 2020년 한국임상심리학회 가을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되었음.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양재원, (14462)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Tel: 02-2164-5538, E-mail: jwyang@catholic.ac.kr

공격 행동은 지각된 의도, 행동 결과, 행위자의 역할과 지위, 사회적 가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사회적으로 '상해적'이라 판단되는 행동이다 (Bandura, 1973). 공격 행동과 그 성향은 주관적 안녕감 저하, 우울, 불안(Crick, Ostrov, & Werner, 2006), 경계선 및 반사회적 성격장애(박성원, 전선영, 박수현, 2017) 등 다양한 정신병리적 현상과 밀접히 관련된다. 그뿐만 아니라 공격 행동은 피해자의 손상 및 스트레스 관리, 경찰 인력의 유지 등 관련된 재정적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친다.

공격성 및 공격 행동을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하여 그 원인을 밝히려는 선행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낮은 자존감과 관련된성에 주목해왔다. 예를 들면, Horney(1950)와 Adler(1956)는 공격 행동은 어린 시절 경험에 뿌리를 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았다. 최근 연구에서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열등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실패의 원인을 외부로 외재화함으로써 타인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을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Donnellan, Trzesniewski, Robin, Moffitt, & Caspi, 2005).

하지만 실제 연구를 살펴보면, 적지 않은 연구에서 낮은 자존감과 공격 행동간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ushman & Baumeister, 1998; Twenge & Campbell, 2003). 또한 오랜 시간 진행되어온 공격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예를 들면 품행장애를 가진 청소년이나 범죄자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려는 시도들이 공격성을 낮추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는 점 역시 낮은 자존감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의심케 하였다. 이에 낮은 자

존감과 공격 행동 관계를 입증하는 연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주장이 수용되어 온 경향성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Baumeister, Smart, & Boden 1996).

대신 Baumeister 등(1996)은 공격 행동은 낮은 자존감에 따른 반응이라기보다는 자아에 대한 위협으로 촉발되는 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 긍정적인 자기 평가가 외부 평가에 의해 절하될 수 있다고 느낄 때 자아 위협을 느끼고 공격 행동이 나타난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자신을 긍정적 혹은 우월하다고 여기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말로 자아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공격 행동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Baumeister와 그의 동료들은 이런 주장을 지지하는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Bushman과 Baumeister(1998)의 연구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는 자아 위협 조건과 과장된 자존감을 나타내는 자기애(narcissism)는 각각 공격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Thomaes, Bushman, Stegge, 그리고 Olthof(2008)의 연구에서도 경쟁 과제에 실패하고 저조한 수행의 결과가 공개되어 외부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 기대되는 실험 조건이 공격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그때 높은 자존감과 자기애를 가진 이들이 가장 높은 공격 행동을 나타냈다.

그러나 Baumeister 등(1996)의 주장은 낮은 자존감과 공격 행동간 유의한 관계를 밝힌 일부 선행 연구 결과(예: Donnellan et al., 2005)를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공격 행동에 대한 자기애와 높은 자존감의 상호작용 효과는 확인하였으나 높은 자존감의 개별적인 영향력을 증명하지는 못했다 (Bushman et al., 2009; Thomaes et al., 2008).

자존감 수준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지속되던 가운데, Kernis와 Waschull(1995), Zeigler-Hill(2011)은 자존감의 다른 측면인 불안정성(self-esteem instability)에 주목하였다. 자존감 불안정성이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자기 가치감과 상황적 맥락에 근거하여 짧은 시간 내 경험하는 자존감 변동성으로, 취약하고 연약한 자존감을 나타내는 지표로 제시되었다.

Kernis(2005)와 Zeigler-Hill(2011)에 따르면, 안정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단단하고 현실에 기반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형성하고 있어 타인에게 자존감에 대한 지속적인 타당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위협감 없이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좌절과 실패를 잘 받아들인다. 반대로 자존감 불안정성이 높지만 취약하고 연약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내·외부적으로 발생하는 평가적 정보에 영향을 크게 받아 변하기 쉬운 자존감을 가졌으며, 자신의 가치감에 대해 의심한다. 그 결과, 자신의 취약한 자존감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외부 평가 및 자원에 집착한다. 따라서 자존감 불안정성이 높은 이들은 자아 위협 사건에 취약하며, 그때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 행동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선행 연구에서 자존감 불안정성과 공격 행동의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었다(Falkenbach, Howe, & Falki, 2013; Zeigler-Hill & Wallace, 2012).

자존감 불안정성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자존감 수준과 공격 행동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간 상반된 결과를 이해해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하면 자존감이 낮을수록 불안정하거나, 심지어 자존감이 높아도 불안정하면 공격 행동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제 Falkenbach 등(2013)의 연구에서 자기 보고식 설문지로 측정된 공격 행동은 자존감 불안정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자존감 수준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Zeigler-Hill과 Wallace(2012)의 연구에서도 자존감 불안정성은 언어적 공격 행동, 신체적 공격 행동과 각각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때 자존감 수준은 언어적 공격 행동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신체적 공격 행동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ernis(2005)와 Zeigler-Hill(2011)에 따르면, 자존감 불안정성이 높은 이들은 좌절과 실패에 위협감을 경험하며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즉, 자존감 불안정성은 자아 위협감에 대한 취약한 특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존감 불안정성이 높은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강렬하게 자아 위협을 경험하고 그 결과 공격 행동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아 위협 경험은 개인마다 다르게 경험하는 주관적인 경험이며, 이를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따라 이후의 행동 역시 다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안정적인 자존감을 가진 이들이 흔히 위협적이지 않은 것으로 경험하는 상황에서 자존감 불안정성이 높은 이들은 위협감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주관적인 경험은 이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자아 위협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을 고려하기 위해 수치심이라는 정서에 주목하였다. Baumeister 등(1996)에 따르면, 자아 위협 경험이란 외부 평가에 의해 궁정적인 자기 평가가 절하되는 상황이다. Nishina와 Juvonen(2005), Olthof,

Ferguson, Bloemers와 Deij(2004)는 자아 위협 상황에서 흔히 경험하는 정서로 수치심을 주목하였다. 수치심은 자의식 정서 중 하나로, 타인 및 자기의 부정적 평가와 관련되고 감정, 인지, 동기적 경험을 포함하는 감정으로(Blum, 2008), 평가 절하되고 열등하다고 느끼는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정서로 정의된다(Tangney & Dearing, 2002). 선행 연구에 따르면, 수치심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할 때 정서 조절에 실패하거나 수치심과 관련된 자존감의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격 행동과 같은 부적응적인 대처가 나타날 수 있다(안지현, 이승연, 2013; Shanahan, Jones, & Thomas-Peter, 2011; Tangney & Dearing, 2002).

따라서 자존감 불안정성이 높은 이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쉽게 자아 위협감과 수치심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공격 행동을 나타낼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자존감 불안정성과 공격 행동이 유의한 관계를 밝힌 선행 연구는 있었다. 하지만, 자존감 불안정성이 높은 이들이 어떤 요인으로 공격 행동을 나타내는지, 자아 위협 상황이나 해당 상황에서의 수치심 같은 촉발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자존감 불안정성에 따른 자아 위협 경험에 대한 취약성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존감 불안정성이 자아 위협 경험의 취약성을 보이며, 그로 인해 공격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자존감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자아 위협 상황에서 더 강력한 수치심을 경험할 것이다. 자존감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수치심 경험을 매개로 하여 공격 행동이 나타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자존감 불안정성과 공격 행동과

의 관계에서 자아 위협에 대한 수치심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 방 법

### 연구 대상

국내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통해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여 119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 중 극단치(outlier) 7명의 자료를 제외하였고 총 112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 측정 도구

**자존감 불안정성 척도.** 자존감의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신희천과 장재원(2011)이 개발한 자존감 불안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단일요인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신희천과 장재원(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2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4였다.

**한국판 상태 자존감 척도.** 본 연구에서 특정한 시점에서의 자존감은 Heatherton와 Polivy (1991)가 개발하고 박홍석, 이정미(2015)가 번안 및 타당화한 상태 자존감 척도(State Self-Esteem Scale: SSE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수행 자존감, 외모 자존감, 사회 자존감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우 그렇다.). Heatherton와 Polivy(199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2였고 박홍석과 이정미(2015)의 연구에서는 .89였다.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한국판 상태 수치심 척도.** 실험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수치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Marschall, Sanftner와 Tangney(1994)가 개발한 상태 수치심 및 죄책감 척도(State Shame and Guilt Scale: SSGS) 중 유정미(2018)가 수치심 하위 요인의 5문항을 번안한 한국판 상태 수치심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며(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 수치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Marschall 등(199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9였고, 유정미(2018) 연구에서는 .89였다.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한국판 관계 수치심 척도.**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실험실 상황은 Smith, Webster, Parrott과 Eyre(2002)의 연구를 기반으로 Thomaes 등(2008)이 사용한 인터넷 순위 방식을 따른 것이다. 이는 공격 노출을 통한 자아 위협 사건으로, 이때 경험하는 수치심은 대인 관계적 관심 혹은 염려와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 상황에서 경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관계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Wong, Kim, Nguyen, Cheng 및 Saw(2014)가 개발하고 최현수(2015)가 번안한 관계 수치심 척도(Interpersonal Shame Scale: IS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적 수치심 5문항, 관계적 수치심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경험을 초점으로 6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토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수치심 문항만 사용하였으며, 문

항에서 '요즘'이라는 단어를 '현재'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또한, 이 척도는 상태 수치심 척도와 마찬가지로 실험 상황에서 경험하는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정 방식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상태 수치심 척도의 평정 범위와 동일하게 5점 리커트(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수정하여 제공하였다. Wong 등(2014)의 연구에서 관계적 수치심 하위 요인의 Cronbach's  $\alpha$ 는 .94였으며 최현수의 연구(2015)에서는 .93였다.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 실험 장치

실험 프로그램은 PsychoPy 2 v.1.90.3을 사용해 제작하였다. 실험은 15.6인치 모니터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모든 연구 참가자는 동일한 크기와 동일한 밝기, 모니터와 동일한 거리(50cm)의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자극으로 포함된 청각 자극의 청취를 위해 헤드셋을 사용하였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의 반응은 키보드와 마우스를 통해 수집되었다.

### 실험 절차

자아 위협의 실험적 조작을 위해 Lewis, Alessandri와 Sullivan(1992)과 Thomaes 등(2008)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쉬운 과제 실패 패러다임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Lewis 등(1992)의 쉬운 과제 실패 패러다임에서는 간단한 경쟁 과제를 실시한 후 참가자에게 실패나 패배의 피드백을 제공하여 자아 위협 상황을 조작하였다. 유사하게 Thomaes 등(2008)의 연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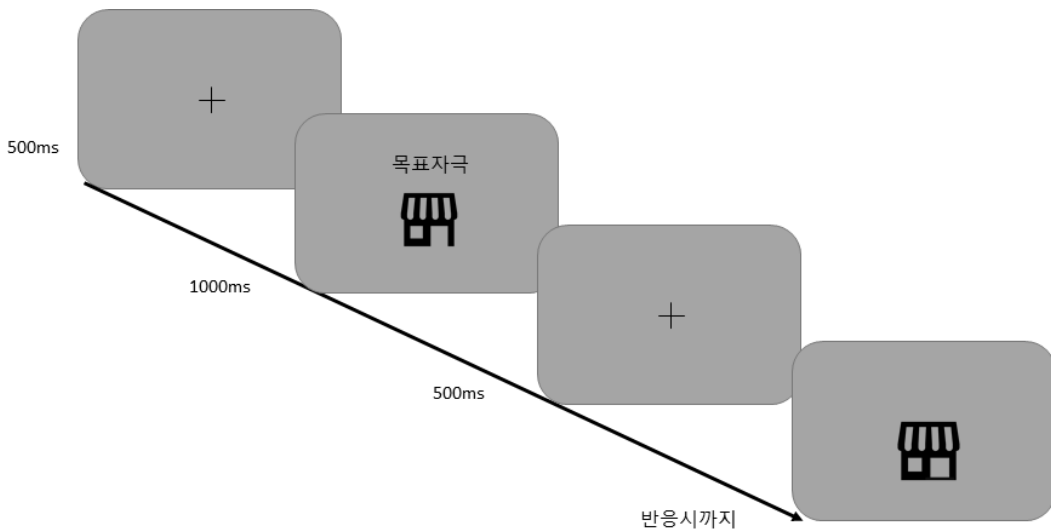


그림 1. 실험 시행의 예

는 Smith 등(2002)의 연구를 기반으로 인터넷 순위 방식을 사용하였다. 인터넷 순위 방식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불특정 다수와 경쟁하는 게임 과제를 제시한 후 게임 성과에 따른 순위가 결정된다고 안내하였다. 게임이 시행된 후 참가자를 가장 낮은 순위에 배치하였으며 가상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순위표를 참가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아 위협 상황을 조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쉬운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자아 위협 상황 조작을 위해서 Thomaes 등(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피드백 제공 방식을 따랐다.

본 연구에서 쉬운 과제로는 간단한 도형(픽토그램, pictogram)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제를 사용하였다. 실험 과제가 시작되면 지시문을 통해 과제의 구성, 진행 방법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참가자는 속도와 정확성을 기준으로 최근 연구에 참여한 30명의 순위가 결정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참가자는 지시문을 읽고 이해한 후 'space bar'를 눌러 과제를 시작하였다.

과제가 시작되면 고정점(fixation cross)이 500ms동안 제시된 후, '목표 자극'이라는 문구와 함께 목표 자극이 1000ms동안 제시되었다. 이후 다시 고정점이 500ms 제시된 후, 반응 자극이 제시되었다. 참가자는 제시된 반응 자극이 처음 제시된 목표 자극과 동일하면 좌측 키보드 방향키('←')를, 다르다면 우측 키보드 방향키('→')를 눌러야 했다. 참가자가 반응할 때까지 반응 자극은 제시되고, 반응을 하면 다음 시행으로 진행되었다. 실험 시행의 예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과제에서 사용된 자극으로는 집, 전구, 악기를 사용하였으며, 참가자에게 제시되는 자극의 제시 순서는 고정하여 모두가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 블록(block)은 60회 시행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세 블록, 180회의 시행이 진행되었다. 60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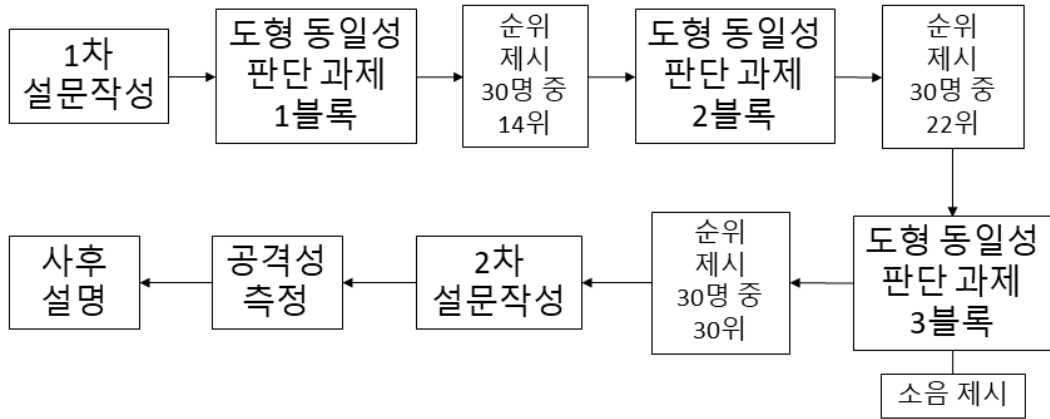


그림 2 실험 절차

한 블록이 끝날 때마다 다른 가상의 참가자 이름, 순위와 함께 참가자의 이름과 순위를 40초 동안 제시하였다. 참가자의 순위는 수행의 정도와 관계 없이 첫 번째 블록에서는 30명 중 14위, 두 번째 블록에서는 22위, 세 번째 블록에서는 30위로 준비된 결과표를 화면에 제시하였다. 특히 세 번째 블록은 일정 수준의 소음이 제시된 상황에서 실험은 진행되었다.

실험이 종료되고 설문을 추가로 진행한 후, 실험의 마지막 블록에서 제시된 소음의 크기는 순위가 높았던 이전 참가자들이 설정한 값의 평균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리고 참가자도 이전 세트인 첫 번째 블록에서 평균 이상의 순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다음 참가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소음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다. 그리고 참가자는 소음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다섯 단계의 소음을 모두 확인한 후 그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는 선행하는 Taylor(1967)의 연구에서 공격성을 측정하는 방식인 경쟁 반응 시간 과제(competitive reaction time test)를 차용한 것이다.

Taylor(1967)는 그의 연구에서 가상의 상대와 경쟁하는 과제를 시행한 후, 이기면 상대방이 듣게 될 소음의 강도와 지속 기간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강도와 지속 시간을 공격성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 역시 이 연구와 동일하게 이후 참여자에게 제공하기로 선택한 소음의 정도를 공격성의 지표로 활용하였다.

### 연구절차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자존감 불안정성에 따라 자아 위협 사건에 대한 주관적 경험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피검자에게 실험적 방법으로 조작한 자아 위협 사건을 동일하게 제공하였다. 실험실 사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의 차이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연구의 본래 목적을 숨겨야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자존감과 정서 경험이 정보 지각과 관련된 반응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안내하고 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참가자가 연구실에 도착하면 인적 사항을 확인

한 후 연구에 대해 안내하였다. 실험 과제 설명, 실험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및 후속 조치,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과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실험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사항도 함께 안내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하고, 자존감 불안정성, 상태자존감, 관계수치심, 상태수치심을 측정하였다. 이후 실험은 암막을 이용하여 자연광이 최대한 차단된 실험실에서 진행하였다.

실험이 종료된 후 처음에 시행했던 것과 동일한 자기 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후 연구 참여자에게 제시할 소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후 실험의 본래 목적과 연구 시작 전 사실과 다른 연구 목적을 알린 이유를 포함하여 후속 보고(debriefing)를 진행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였다. 실험은 최대 30~35분이 소요되었다. 실험의 절차는 그림 2에 도식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과정은 연구자 소속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다(IRB No. 1040395-201908-26).

## 자료 분석

### 측정 변인

본 연구는 개인의 자존감 불안정성에 따라 자아 위협 사건에 대한 정서 경험의 차이와 공격 행동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에 실험 과제 전 설문지를 통해 자존감 불안정성을 측정하였다. 실험적 처치의 조작 점검을 위해 상태 자존감을

실험 과제 시행 전과 후, 두 번 측정하였다. 상태 수치심, 관계 수치심 척도도 실험 과제 시행 전과 후, 두 번 측정하였다. 실험 과제 상황에서 경험한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수치심을 측정하는 상태 수치심과 실험 상황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관계 수치심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상황에서 경험한 수치심 정서를 측정하고자 두 점수를 통합해 ‘수치심 경험’ 값으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음 참가자와 참가자의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소음의 크기 설정으로 공격 행동을 측정하였다.

### 분석 방법

IBM SPSS Statistics 25.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대해 기술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실험적으로 조작한 자아 위협 상황에 대한 조작 점검을 위해 과제 전과 후 측정한 상태자존감, 수치심에 대해 대응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하였다. 넷째, 매개모형과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의 Macro model 4를 실시하였다.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의 4단계 검증 방법과 Sobel(1982)의 검증을 사용하지 않고 Macro(Preacher, & Hayes, 2004; Hayes, Preacher, & Myers, 2011)를 이용하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Baron과 Kenny(1986)이 주장하였던 매개 모형 검증의 첫 번째 단계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유의해야 한다는 가정이 필수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Shrout & Bolger, 2002; Zhao, Lynch Jr, & Chen, 2010; Hayes et al., 2011), 본 연구도 이러한 주장을 따랐다. 둘째,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인 검증은 매개효과(ab)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는데,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부정확한 결과가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박현정, 이진실, 2013; 허원무, 2013) 본 연구에서는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특히, Preacher와 Hayes(2004)는 단순 매개효과가 정규분포 또는 t분포를 이루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제시하고 있어, 단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본 연구에는 Bootstrapping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Hayes의 Macro를 이용하면 매개모형 검증과 Bootstrapping을 활용한 매개효과 검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Hayes의 macro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Hayes의 model 4에 해당한다.

## 결 과

### 연구 대상자 특성

본 연구에는 총 119명이 참여하였다. 그 중 실험 자극 노출 후 상태 자존감이 노출 전에 비해 오히려 극단적으로(표준편차 2 이상) 증가한 7명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실험 상황에서 오히려 극단적으로 자존감이 증가한 예외 값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총 112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1.19세( $SD=1.98$ )였으며, 최솟값 18세, 최댓값 27세였다. 참가자는 남성 30명, 여성 82명으로 여성이 73.2%를 차지하였다.

### 조작 점검

실험적 방법으로 자아 위협 상황을 조작하기 위해 쉬운 과제 실패 패러다임과 인터넷 순위 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조작한 상황이 모든 참가자에게 자아 위협 상황이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실험 처치 전과 후 측정된 상태 자존감과 수치심에 대해 Wilcoxon signed rank 검증을 사용하였다. 실험 자극 노출 전과 후 상태자존감의 차이값과 실험 자극 노출 전과 후 수치심의 차이값이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아, 비모수 분석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실험 과제 시행 전과 후에 측정된 상태 자존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실험적 조작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어왔던 것처럼 자존감에 대한 위협 상황으로 판단된다.

상태 수치심 척도와 관계 수치심 척도로 측정된 전체 수치심 경험이 실험 과제 시행 전과 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실험적 처치로 인해 수치심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Wilcoxon signed rank 검정

변수	조작 전 <i>M (SD)</i>	조작 후 <i>M (SD)</i>	<i>Z</i>
상태 자존감	3.60 (0.84)	3.46 (0.86)	-2.82**
수치심 경험	1.30 (0.58)	1.50 (0.84)	-3.13**

\*\* $p < .01$ .

### 기술 통계량과 상관 분석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와 상관은 표 2와 같다.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를 확인했을 때, 모든 주

요 변인의 왜도의 절대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을 만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6).

표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

	자존감 불안정성	수치심 경험	공격 행동
자존감 불안정성	-		
수치심 경험	.32**	-	
공격 행동	.01	.25**	-
평균 (표준편차)	2.27 (0.89)	0.19 (0.63)	2.13 (1.00)
왜도	0.41	2.23	0.93
첨도	-0.59	7.70	0.78

\*\*  $p < .01$ .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존감 불안정성은 실험 상황에서 경험한 수치심(이하 수치심 경험)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수치심 경험은 공격 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존감 불안정성과 공격 행동과의 상관은 유의하

지 않았다.

### 매개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 불안정성이 클수록 자아 위협 상황에서 수치심을 크게 경험할 것이고 수치심을 크게 경험할수록 더 위협적인 공격 행동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는 단순 매개모형에 해당되며 Hayes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자존감 불안정성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치심 경험의 매개효과는 표 3과 같다. 자존감 불안정성은 수치심 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beta = .31, t = 3.54, p < .001$ ).

하지만, 자존감 불안정성은 공격 행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공격 행동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고 자존감 불안정성과 수치심 경험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수치심 경험만 공격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표 3. 자존감 불안정성과 공격 행동의 과제에서 수치심 경험의 매개효과

종속	독립	B	SE	t	95% 신뢰구간		R <sup>2</sup>	$\Delta R^2$	F
					LLCI	ULCI			
수치심 경험	constant	-.31	.15	-2.04*	-.63	-.00	.102		12.53***
	자존감 불안정성	.22	.06	3.54***	.09	.35			
공격 행동	constant	2.08	.26	8.01***	1.57	2.60	.000		.03
	자존감 불안정성	.02	.10	.19	-.19	.23			
공격 행동	constant	2.22	.25	8.66***	1.71	2.73	.070	.070	4.11*
	자존감 불안정성	-.07	.10	-.72	-.29	.13			
	수치심 경험	.43	.15	2.86**	.13	.74			

\* $p < .05$ , \*\* $p < .01$ , \*\*\* $p < .001$ .

주었다( $\beta = .27, t = 2.86, p < .01$ ).

자존감 불안정성은 단독으로 공격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수치심 경험을 매개하였을 때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개하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또한, 자존감 불안정성은 수치심 경험에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수치심 경험은 공격 행동을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자존감 불안정성과 수치심, 공격행동의 완전 매개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는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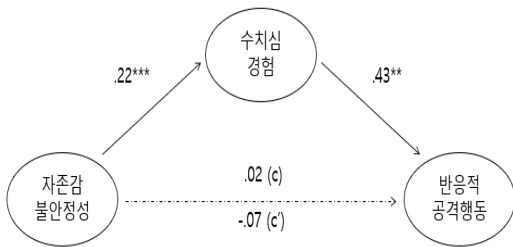


그림 3. 자존감 불안정성과 공격 행동의 관계에서 수치심 경험의 매개효과

### 매개효과의 검증

매개효과(ab)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 신뢰구간을 활용하였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존감 불안정성이 공격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효과의 경우, Bootstrapping

신뢰구간 상한값과 하한값(-.294 ~ .137)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어  $\alpha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존감 불안정성이 수치심 경험을 매개하여 공격 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와 같은 경우 Bootstrapping 신뢰구간 상한값과 하한값(.014 ~ .203)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alpha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effect	boot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직접효과 (c')	-0.070	.108	-.294	.137
매개효과 (ab)	.099	.048	.014	.203

### 상태 자존감과 자존감 불안정성이 수치심 경험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수준이 자존감 불안정성과 수치심 경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추가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5에 제시하였다. 종속 변인으로 수치심 경험을 설정하고 1단계에서 예측 변인으로 자존감 불안정성을, 2단계에서는 추가적으로 실험 참여 전의 상태 자존감을 투입하였다.

표 5. 자존감 불안정성과 상태 자존감이 수치심 경험에 미치는 영향

종속	단계	예측변인	B	$\beta$	t	R <sup>2</sup>	$\Delta R^2$	F	VIF
수치심 경험	1	자존감 불안정성	.22	.32	3.54**	.102		12.53***	1.00
	2	자존감 불안정성	.20	.28	2.93**	.112	.01	6.85**	1.14
		상태 자존감	-.07	-.10	-1.07				

\*\* $p < .01$  \*\*\* $p < .001$ .

분석 결과, 1단계에서 자존감 불안정성이 수치심의 10%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F=12.53$ ,  $p<.001$ . 2단계에서 상대 자존감을 투입한 결과, 상대 자존감은 수치심을 추가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즉, 자존감 수준은 자존감 불안정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아 위협 상황에서의 수치심 경험에 추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자존감과 공격 행동의 관계를 탐색했던 선행 연구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기에 둘 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뿐만 아니라, 변인 간 관계에서 구체적인 경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자존감 특성에 따른 공격 행동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는 더욱 복잡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자존감의 높고 낮음의 수준이 아니라 자존감 불안정성이라는 측면으로 이전 선행 연구의 상반된 결과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아 위협 상황에서 자존감 불안정성이 공격 행동으로 이어지는 부적응적인 행동의 발생 과정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아 위협을 경험하는 상황을 조작하였고 이때의 수치심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서 자존감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자아 위협의 상황에서 강렬한 수치심을 경험하고 그에 따라 공격 행동이 증가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자존감 수준이 쉽게 변동하는 자존감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간단한 경쟁 과제에서의 저조한 수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치심을 더 강하게

경험했다. 즉 자존감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일상적인 수준의 자아 위협 상황에서도 강렬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Kernis(2005), Zeigler-Hill(2011), Zeigler-Hill와 Showers(2007)의 주장, 자존감 불안정성이 높은 이들은 실패와 좌절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지도 모르는 외부 자원에 집착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에, 자존감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자아 위협 경험에 대한 취약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Bushman과 Baumeister(1998)의 주장, 즉 높은 자존감을 나타내는 자기애를 가진 이들이 자아 위협감에 공격 행동을 나타낼 정도로 자아 위협에 대한 취약성을 가진다는 주장과는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기애는 자존감 수준 이외에도 다양한 특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또한, 이들 선행 연구에서 높은 자존감 혹은 자기애를 가진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서 자아 위협 사건을 더 고통스럽게 경험하는지, 자아 위협 상황에서의 주관적인 경험을 고려하지 않았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실험 상황을 이용해 동일한 자아 위협 상황에서 자존감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더 강렬한 수치심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하여 자아 위협 상황을 더 고통스럽게 경험함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실험 참여 전 측정된 상대 자존감은 자아 위협 상황에서의 수치심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존감 수준이 아니라 자존감 불안정성이 자아 위협 상황에 대한 상대적으로 더 강렬한 고통감을 유발하는, 자아 위협에 대한 취약성을 나타내는 지표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자존감 불안정성이 높은

이들이 자아 위협 상황에서 강렬하게 경험하는 수치심은 공격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치심 경험은 상황으로부터의 철수나 회피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기존에 받아들여지던 주장과 달리, 공격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Tangney, Wagner, Hill-Barlow, Marschall, & Gramzow, 1996; Thomaes et al., 2008; Thomaes, Stegge, Olthof, Bushman, & Nezlek, 2011). Tangney 등 (1996)에 의하면 수치심을 흔히 경험하는 이들은 인생 전반에 걸쳐 타인을 탓하고 타인에게 쉽게 분노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ngney와 Dearing(2002)에 의하면 수치심이 촉발하는 공격성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들에게 분노함으로써 자기 평가 절하라는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는 자아 보호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수치심 경험이 공격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여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자존감 불안정성과 공격 행동의 관계는 자아 위협 상황에서 경험하는 수치심이 완전 매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ushman 등(2009), Thomaes 등(2008)의 선행 연구에서 수치심 조건이나 자아 위협 조건이 아닐 때는 자기애나 자존감 수준에 따른 공격 행동의 차이가 없었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런 연구 결과는 자존감 불안정성이 높으면 자아 위협 경험에 취약성을 가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수치심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고 공격 행동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자존감 불안정성과 공격 행동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런 결과를 감안하면, 자존감 불안정

성과 공격 행동 간의 관계를 억제하는 제 3변인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자존감 불안정성이 높더라도 특정 요인으로 인해 자아 위협 상황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지 않거나 취약성을 보이더라도 공격 행동을 억제하는 다른 특성이 있을 경우, 자존감 불안정성이 높더라도 자아 위협 상황에서 공격 행동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존감 수준과 관련된 상반된 선행 연구 결과를 불안정성이라는 자존감의 측면으로 이해함으로써 자존감과 공격 행동의 관계에 대해 더욱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높은 자존감 그 자체보다는 현실에 기반하고 자신의 장단점을 아울러 지각함으로써 외부 변화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는 안정적인 자존감이 심리적 건강에 중요하다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격 행동에 대한 개입에서 자아 위협감, 수치심 정서를 다룰 필요성을 제안함으로써 치료적 개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의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상태 자존감을 활용하여 자존감 수준을 배제하고 자존감의 불안정성이 자아 위협 경험과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자존감 수준이 낮고 불안정한 경우와 자존감이 높고 불안정한 경우, 공격 행동 촉발하는 다른 요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자존감 수준이 높고 불안정한 경우에는 과장되고 긍정적인 평가를 더 빈번히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고 불안정한 경우, 부정적 평가를 더 빈번히 기대할 수 있다. De La Ronde과 Swann(1993)의 연구에서 외부 평가에 대한 반응과 상관없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이들은 긍정적 평가를, 낮은 자존감을 가진 이들은 부정적 평가를 선호하는 자아일치성(self-consistency)이 나타났다. 이러한 외부 평가에 대한 기대의 차이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존감 불안정성과 자기애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자기애 및 자기애적 경향성은 자존감의 또 다른 측면으로 주목받아왔다. 따라서 자존감에 대한 보다 통합적 이해를 위해 앞으로 자존감 불안정성과 이러한 여러 자존감 측면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실험 조건으로 유발한 수치심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그 값이 크지는 않았다. 이는 실험 조건이 자존감의 손상과 수치심 경험 등 피검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고 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픽토그램 분류 과제는 그 수행 방식이 간단하였을 뿐 아니라 수행 결과가 피검자에게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쉬운 과제 실패 패러다임에서 사용한 수검자 개인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인터넷 순위 방식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저조한 수행 결과에 대해 수검자가 경험할 자존감의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결과, 수검자가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경험한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였지만, 실험 조건에서 경험한 수치심 정도가 크지 않아 이를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심리학 관련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을 표집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성비가 여성에게 편중되었다. 공격성에 남녀 간 차이가 분명히 나

타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참여자의 성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은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성비와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 참 고 문 헌

- 박성원, 전선영, 박수현 (2017). 경계선 성격 성향과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주의편향의 조절된 매개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1), 20-32.
- 박현정, 이진실 (2013).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중단매개효과 검증. *교육평가연구, 26*, 83-106.
- 박홍석, 이정미 (2015). 한국판 상태자존감척도(K-SSE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1), 133-158.
- 안지현, 이승연 (2013).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수치심, 분노,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61-84.
- 유정미 (2018). 자기자비 글쓰기가 상태 수치심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재원, 신희천 (2011).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35-654.
- 최현수 (2015). 관계 수치심 척도(ISI)의 번안 및 타당화.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원무 (2013). 매개효과 분석 방법의 최근 트렌드: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단순, 다중, 이중매개효과 분석 방법. *기업과 혁신연구, 6*(3), 43-59.
- Adler, A. (1956).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A systematic presentation in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New York: Harper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 analysis*. London, UK: Prentice-Hall.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umeister, R. F., Bushman, B. J., & Campbell, W. K. (2000). Self-esteem, narcissism, and aggression: Does violence result from low self-esteem or from threatened egotis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1), 26-29.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1), 5-33.
- Blum, A. (2008). Shame and guilt,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Traumatology*, 14(3), 91-102.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219-229.
- Bushman, B. J., Baumeister, R. F., Thomaes, S., Ryu, E., Begeer, S., & West, S. G. (2009). Looking again, and harder, for a link between low self-esteem an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77(2), 427-446.
- Crick, N. R., Ostrov, J. M., & Werner, N. E. (2006). A longitudinal study of relational aggression, physical aggression, and children's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2), 131-142.
- De La Ronde, C., & Swann, W. B. (1993). Caught in the crossfire: Positivity and self-verification strivings among people with low self-esteem. In R. F. Baumeister (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pp. 147-165). New York: Plenum Press.
-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obins, R. W., Moffitt, T. E., & Caspi, A. (2005).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Psychological Science*, 16(4), 328-335.
- Falkenbach, D. M., Howe, J. R., & Falki, M. (2013). Using self-esteem to disaggregate psychopathy, narcissism,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4(7), 815-820.
- Hayes, A. F., Preacher, K. J., & Myers, T. A. (2011). Mediation and the estimation of indirect effects in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In E. P. Bucy, & R. L. Holbert (Eds.), *Sourcebook for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Methods, measures, and analytical techniques*, (pp. 434-465). New York: Routledge.
- Heatherton, T. F., & Polivy, J. (199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measuring state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895-910.
- Homey, K. (1950). *Neurosis and human growth*. New York: Norton.
- Kernis, M. H. (2005). Measuring self-esteem in context: The importance of stability of self-esteem in psychologic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73(6), 1569-1605.
- Kernis, M. H., & Waschull, S. B. (1995). The interactive roles of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Research and theor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7, 93-141.
-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 Lewis, M., Alessandri, S. M., & Sullivan, M. W. (1992). Differences in shame and pride as a function of children's gender and task difficulty. *Child Development*, 63(3), 630-638.

- Marschall, D., Sanftner, J., & Tangney, J. P. (1994). *The state shame and guilt scale*. Fairfax, VA: George Mason University.
- Nishina, A., & Juvonen, J. (2005). Daily reports of witnessing and experiencing peer harassment in middle school. *Child Development, 76*(2), 435-450.
- Olthof, T., Ferguson, T., Bloemers, E., & Deij, M. (2004). Morality- and identity-related antecedents of children's guilt and shame attributions in events involving physical illness. *Cognitive and Emotion, 18*(3), 383-404.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Shanahan, S., Jones, J., & Thomas-Peter, B. (2011). Are you looking at me, or am I? Anger, aggression, shame and self-worth in violent individuals.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29*(2), 77-91.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mith, R. H., Webster, J. M., Parrott, W. G., & Eyre, H. L. (2002). The role of public exposure in moral and nonmoral shame and guil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1), 138-159.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Guilford Press.
- Tangney, J. P., Wagner, P. E., Hill-Barlow, D., Marschall, D. E., & Gramzow, R. (1996).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constructive versus destructive responses to anger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4), 797-809.
- Taylor, S. P. (1967). Aggressive behavior and physiological arousal as a function of provocation and the tendency to inhibit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35*(2), 297-310.
- Thomaes, S., Bushman, B. J., Stegge, H., & Olthof, T. (2008). Trumping shame by blasts of noise: Narcissism, self esteem, shame, and aggression in you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79*(6), 1792-1801.
- Thomaes, S., Stegge, H., Olthof, T., Bushman, B. J., & Nezelek, J. B. (2011). Turning shame inside-out: "Humiliated fury" in young adolescents. *Emotion, 11*(4), 786-793.
- Twenge, J. M., & Campbell, W. K. (2003). "Isn't it fun to get the respect that we're going to deserve?" Narcissism, social rejection,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261-272.
- Wong, Y. J., Kim, B. S., Nguyen, C. P., Cheng, J. K. Y., & Saw, A. (2014). The interpersonal shame inventory for Asian Americans: Sca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1), 119-132.
- Zeigler-Hill, V. (2011). The connections between self-esteem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41*(3), 157-164.
- Zeigler-Hill, V., & Showers, C. J. (2007). Self-structure and self-esteem stability: The hidden vulnerability of compartment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2), 143-159.
- Zeigler-Hill, V., & Wallace, M. T. (2012). Self-esteem instability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Self and Identity, 11*(3), 317-342.
- Zhao, X., Lynch, J. G., & Chen, Q. (2010).



Reconsidering Baron and Kenny: Myths and truths about mediation analysi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7(2), 197-206.

원고접수일: 2021년 7월 15일

논문심사일: 2021년 8월 3일

게재결정일: 2021년 10월 25일

# Effect of self-esteem instability on aggressive behavior: Mediating effect of shame

Da In Lee            Jae-Won Yang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ham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instability and aggressive behavior. A total of 118 college students completed self-reported Self-Esteem instability, Self-Esteem, and Shame scales. In the experiment, they were presented with ego threatened situation, Aggressive behavior was measured using the modified Competitive Reaction Tim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self-esteem instability, the stronger shame in ego threatened situation. Furthermore, the direct effect of self-esteem instability on offensive behaviors was insignificant, while the indirect effect of shame-mediated was significa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shame could fully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self-esteem instability and offensive behavior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self-esteem, self-esteem instability, threatened egotism, shame, aggressive behavior